

'드론, 우리 삶의 일상이 되다'

'전주국제드론산업박람회' 개최... 사진·영상 공모전·야간 드론라이트쇼 등 다채롭게 운영

미래 첨단산업의 성장을 주도하는 드론 산업의 오늘과 내일을 엿볼 수 있는 산업 박람회가 K-드론 선도도시 전주에서 펼쳐졌다.

전주시가 주최하고 (사)캠텍종합기술원 등이 주관하는 '2023 전주국제드론산업 박람회'가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와 덕진공원 등 전주시 일원에서 개최됐다.

5회째를 맞아 '드론, 우리 삶의 일상이 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국내 유관 기관 및 드론 기업 관계자, 미국·프랑스·영국 등 해외 9개국 25명 드론산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화려한 포문을 열었다.

'일상 속 드론'을 핵심 주제로 내세운 이번 박람회는 개막식부터 차별화된 이벤트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개그맨 임혁필씨는 '전주 드론산업'을 주제로 신비로운 샌드아트를 선보여 참석자들의 감탄을 자아냈으며, 항공을 가르며 배송 드론이 전달한 미래 산업의 열쇠는 박람회의 시작을 축하하며 전주 드론산업의 비전을 선포하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또한, 시는 일상 속 드론의 활용성을 선보이는 시민 체험형 박람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선보였다.

행사장 일원에는 '전주를 타다 드론 사진·영상 공모전'의 수상작이 전시돼 드론의 눈으로 바라본 전주의 색다른 매력을 시민과 공유했으며, '2023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현재 남고산 일대(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실증 중인 전주형 드론 물



전주시가 주최하고 (사)캠텍종합기술원 등이 주관하는 '2023 전주국제드론산업 박람회'가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와 덕진공원 등 전주시 일원에서 개최됐다.

류배송 시연도 덕진공원 일원에서 펼쳐졌다.

특히, 이번 박람회의 백미는 개막일 야간시간대 진행된 '야간 드론 라이트쇼'를 꼽을 수 있다. 전주의 가을밤을 빛으로 수놓은 600대 군집 드론은 전주의 자랑인 드론 축구와 풍남문, 태조 여진을 비롯해 배송 드론과 UAM(도심형항공모빌리티) 등 전주 드론 산업의 비전을 형상화하며 시민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이와 함께 올해 박람회에서는 해외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세계인들의 일상에서 활용되는 드론 기술과 서비스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향

에 대해 교류하는 '글로벌 지식정책 포럼'도 열렸다.

여기에 △전주의 미래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K-드론 선도도시 전주관' △한화시스템의 UAM 기체 등 22개 드론 기업의 제품들이 전시된 '기업전시관' △자율주행 미래 수송 수단을 홍보하는 '미래모빌리티 홍보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스포츠로 성장 중인 드론 축구와 신규 개발 종목인 드론 서바이벌 등을 소개하는 '드론레포츠 홍보관' 등 다채로운 전시·홍보관이 관람객을 맞이했다.

이외에도 올해 박람회에서는 드론 축구 아카데미와 드론 시뮬레이터존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국내 드론 축구 최강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력을 겨루는 '2023 전주시장배 전국드론축구대회'도 성황리에 열렸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박람회는 시민과 함께 일상 속 드론의 다양한 활용성과 함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전주시는 강한 경제 전주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인프라 조성과 기업 성장 지원, 첨단기술을 접목한 상용화 모델 개발 등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선도할 드론 산업 육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사랑상품권 11·12월 연 구매한도 확대

전주사랑상품권(돼지카드)의 연간 한도액인 200만 원을 모두 충전한 전주 시민들도 오는 11월과 12월에는 한시적으로 추가 충전이 가능해졌다.

전주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위축된 소비 진작을 위해 전주사랑상품권의 연 구매한도를 오는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있지만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영향으로 체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외식·밥상 불가가 높아져 있는 만큼,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에 전주사랑상품권에 가입한 시민들은 올해 1인당 연간 구매한도액인 200만 원을 모두 사용했다.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각각 월 한도액인 50만 원까지 추가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전주사랑상품권의 캐시백 10% 혜택은 기존대로 유지되며, 11월 판매 후 잔여분은 12월에 별도 판매될 예정이다. /김욱기 기자

개정이라 첫 여성 전북경찰청장 탄생... 신임 전북청장에 임명속

제35대 전북경찰청장에 임명속(58·일남)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이 승진 내정됐다.

지난 28일 정부는 치안정감 및 치안감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전보인사로 전북경찰청은 개정이라 처음으로 여성경찰청장이 탄생했다. 임 신임 전북청장은 서울 출신으로



한영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동국대학교 국사교육과와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을 졸업하고 지난 1987년 경찰청을 입했다.

그는 서울경찰청 수사과 금융정보분석원과 서울 양천경찰서 형사과장, 인천경찰청 제2부 112종합상황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경기 가평경찰청장을 거친 뒤 2021년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이후 인천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을 역임한 뒤 지난 달 27일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뉴시스

디지털 신기술 아이디어 공모 '대상'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교육생 '대장장이' 팀 전국 문제해결 아이디어 공모 왕중왕전서 수상

전주시는 올해 지역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국 문제해결 아이디어 공모 왕중왕전'에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교육생인 '대장장이' 팀이 대상을 차지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지역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은 수도권과 동남권, 동북권, 충청권, 호남권 등 5개 권역에서 진행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 사업으로, 지난 11일 열린 공모 왕중왕전에는 각 지역별 예선전을 거친 총 17개 팀이 출전했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네트워크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를 활용해 지역사회와 지역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공모전으로, 총 4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예예의 대상은 전주지역 예선전에서 대상을 수상해 호남권 출전 팀으로 선발된 '대장장이' 팀이 차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장장이' 팀을 이끈 이성신 대표는 2022년 전주ICT이노베이션스퀘어 시각지능 과정을 수료한 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교육생인 '대장장이' 팀이 전국 문제해결 아이디어 공모 왕중왕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육생으로, 말벌에 의해 양봉에게 피해가 생기는 것을 해결하고자 인공지능의 딥러닝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딥러닝을 활용한 말벌 인식 및 알람장치'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최우상은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 이동을 보장하는 길 찾기 애플리케이션 'Wheel Safer' 아이디어를 선보인 'AIM(수도권)' 팀이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인공지능(AI) 기반 질병 발병 예측가능한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을 제시한 '마보기(충청)' 팀에게 돌아갔다.

또 장려상은 전기차 충전소 불법 점유 자동차용 시스템을 제안한 '상상테크(동북)' 팀이 선정됐다. /김욱기 기자

전주·완주 아동참여기구 교류

전주시 아동정책참여단·완주군 어린이청소년 의회, 체험 워크숍 개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 전주시와 완주군의 아동들이 맞춤형 아동정책을 함께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주시는 지난 28일 완주군 일원에서 전주시 아동정책참여단 30명과 완주군 어린이청소년 의회 3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완주 아동참여기구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체험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주·완주 상생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서 참여한 아동들은 먼저 오전 시간에는 청소년센터 고래와 아동음악부즈스 사무소를 방문해 각 아동참여기구에 대한 소개 및 아동정책을 공유했다.

이어 오후에는 아동놀이시설인 놀도피어를 찾아 포대 친구들과 함께 체험을 즐기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시는 이번 워크숍이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전주시와 완주군의 아동참여기구 간 교류 활성화로 이어져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는 아동정책 발굴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아동정책참여단은 8~13세 아동으로 구성되어 3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온라인 밴드를 통해 일상생활 속 의견제안 활동을 하고 있다.

김종택 시 복지환경국장은 "아동친화도시인 전주시와 완주군이 이번 체험 워크숍을 통해 아동참여기구 간 교류가 활성화 되어 아동정책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운영되길 바란다"면서 "아동이 시민으로 존중받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Contributing to the realization of a healthy country

건강 한국 실현에 기여하는 식품 연구기관

대한민국 첨단식품과학기술이 창조하는 새로운 미래!
그 중심에 한국식품연구원이 있습니다.